



광주 KIXX, 아직은 2% 부족

광주 연고팀 KIXX가 리그 2위로 한국바둑리그 전반기를 마감했다.

KIXX는 팀간 7게임식을 치른 전반기에서 3승3무1패, 승점 12점으로 2위를 마크하는 등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쉬움도 적잖다.

KIXX는 시즌 시작 전부터 탄탄한 팀워크와 선수들의 기량면에서 단연 1위 후보로 꼽혔던 팀이다. 국내 랭킹 3위 최철한 9단은 주장으로 박정상, 흥민표, 이재웅, 최원용 등 나무랄 데 없는 전력이었기 때문이다.

호시탐탐 선두를 노렸던 KIXX는 1위 한계임과의 6라운드 승부가 두고 두고 빠아팠다. 믿었던 최철한 9단이 와일드 카드인 온소진에게 일격을 당한 뒤 흥민표, 박정상까지 무너지면서 1-3으로 무릎을 꾸었다.

이 때문에 승점 2점차로 한계임을 턱밀까지 추격했던 KIXX는 1위와 승점차가 4점으로 벌어졌다. 또 연승을 달리던 팀의 주장 최철한 9단은 연승행진을 5에서 마감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국바둑리그 전반기, '한게임'에 선두 내주고 2위 그쳐

주장 최철한 팀 견인 들판...흥민표·최원용 부진 '옥의 티'

그러나 최철한 9단은 팀의 주장으로서 나무랄 데 없는 활약을 펼쳤다. 개인성적 6승1패로 이창호(매일유업), 이영구(한게임), 유창혁(월드메르디앙)과 함께 다음 1위군에 머무는 등 드물게 팀을 견인하고 있는 것.

KIXX는 2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이재웅 4단의 활약도 뻐놓을 수 없다. 이 4단은 2, 3라운드에서 연속 4강으로 출전, 알토란 같은 승리를 낚아채 '5월의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4라운드에서도 역시 4강으로 출전, 승리를 낚아채면서 팀을 폐쇄 위기에서 구해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박정상 9단은 개인적으로 후지쓰배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5승2패의 복복치 않은 성적으로 팀의 상위권 진입에 큰 힘을 보탰다.

그러나 흥민표(4패)는 7라운드 동안 단 1승도 견지치 못하는 부진을 보였고, 최원용(2승 3패)의 부진도 '옥의 티'다.

KIXX는 후반기에 기회이자 위기를 맞는다. 첫 상대인 신성건설과 한게임을 연파할 경우 승점 12점을 확보, 단독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것이다. 극단적으로 연파할 경우 중위권으로 주저앉는 등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 국면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안조영, 목진석, 김승준, 루이가

■ 한국바둑리그 전반기 순위 (7.31 현재)

순위	팀	승점 (승·무·패)
①	한게임	16(5-1-1)
②	KIXX	12(3-3-1)
③	메르디앙	11(3-2-2)
④	신성건설	9(2-3-2)
⑤	제일화재	7(1-4-2)
⑥	매일유업	6(0-6-1)
⑦	피랜드	5(0-5-2)
⑧	양남일보	4(0-4-3)

포진한 신성건설은 선두권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 KIXX로서는 혼난한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는 1위 한게임과 외나무 대리 승부를 벌여야 한다. KIXX는 이 경기 내출 경우 한게임과 승점차가 7점으로 벌어지는 등 선두 추격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戦神'의 전설 다시 한번...

조훈현 9단, 신라면배 와일드카드 낙점

'전신(戰神)' 조훈현 9단이 다시 한 번 한국바둑을 이끌고 세계정벌에 나선다.

조 9단이 제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에 출전할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었다. 한국기원이 대표선수 5명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정하는 와일드카드 대상자로 낙점받았다. 조 9단은 농심배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는 기사. 그는 지난 2000년~2003년까지 한국이 대회 4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팀의 주장으로 전장을 지휘했다.

무엇보다 그의 발탁 배경은 풍부한 경험. 조 9단은 비록 53세지만 국내 랭킹 7위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노장이다. 국내외 대회에서 무려 157개의 타이틀을 따내는 등 관록과 경륜에서 타 기사들을 압도한다.

또 지난 5월에 열린 제11회 LG배 통합예선에서는 을 삼성화재와 우승자 토시 9단, 종국 신내 장웨이 등 강자들을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며 출전권을 따내는 등 전성기 못지 않는 투혼을 발휘했다.

조 9단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



한·중·일 '빠른 손' 가린다

8~11일, TV바둑전수권

각국 2명 출전 속기전 진행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8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이 개최된다.

이 대회는 한국 KBS와 일본 NHK, 중국 CCTV가 공동 주최하는 방송기전으로 3사가 개별 주최하는 자국기전의 1, 2위 입상자 9단과 우승자 2위 입상자 9단을 만나 준우승에 뛰어들었다.

한편 일본은 지난 대회 우승자로 시드를 받은 장 쇠 9단과 NHK 배 1, 2위에 오른 하네 나오기 9단, 이마무라 도시아 9단, 중국에서는 CCTV 배 1, 2위에 오른 워이 9단과 왕시 5단이 출전해 속 기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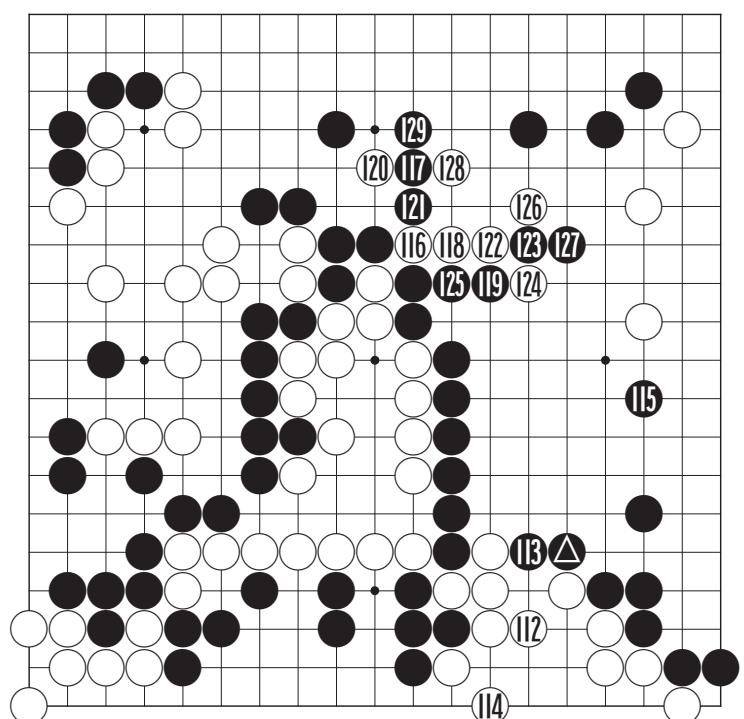


숨어 있는 묘수

3회전 제7보(112~129)

白 김 철 5단
<PCA 생명>

黑 정 장효 5단
<포스코>



혹 112로 젖혀 이번에는 하면 백 대마의 사활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형세는 흑이 크게 유리하지만 김 5단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대마를 잡으려 왔으나

던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단은 '죽이 죽이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던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다.

백 112로 옹크린 수가 고심의 일

족이 있었는데 이 수로는 '참고1'의 백 1로 치받는 수가 정수였다. 백 2로 끊으면 3으로 몬 다음 7까지 확실하게 산다.

그렇다면 112에는 어떤 해법이 있는가. 그것은 흑이 '참고2'의 1로 아래에서 모는 수가 숨어 있다. 백은 2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3으로 치중가는 수가 연이은 묘수로 흑의 꽂들이 패가 난다.

흑이 크게 유리한 형세라 정 5단은 113으로 쉽게 결정하고 115로 지켜 '끝났습니다'를 선언한다.

116으로 끊어 본 수는 큰 수가 난다. 대마는 '죽이 죽이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던지는 것은 그 다음에 김 5단은 129를 보더니 깨끗하게 돌을 던진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대인동삼일부동산

을지공인중개사

일가공인중개사

LCT아워(주)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현대공인중개사

☎(02)23-1140, 5210 101-022-2532
(광주은행, 대인동 소상공인센터)

T.019-616-2353
011-601-8230

구. 헌금 1144-0800
국. 관광 124-7298
2관 관광 124
3관 카비안 해적-밀양의 힘 124
4관 한반도 154 / 퀄리아디디 124
5관 관광 124
6관 관광 124 / 유심 154
7관 스승의 은혜 184
8관 퀄리아 디디 124
9관 관광 124

한국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벤트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제작비와 함께 3시간 초과 정상료 부과)
★화요일 공짜(매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국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벤트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제작비와 함께 3시간 초과 정상료 부과)
★화요일 Teen Age Day 등, 고성 1,500원 할인(광주점제작)

은 유흘 제24회 KBS바둑왕전에 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이창호 9단과 우상호 9단이 출전한다.

이 9단은 지난 95년과 96년, 2002년에 우승했고, 10년 만에 우승하는 유 9단은 96년 결승에서 이창호 9단을 만나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편 일본은 지난 대회 우승자로 시드를 받은 장 쇠 9단과 NHK 배 1, 2위에 오른 하네 나오기 9단, 이마무라 도시아 9단, 중국에서는 CCTV 배 1, 2위에 오른 워이 9단과 왕시 5단이 출전해 속 기대결을 벌인다.

한국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벤트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제작비와 함께 3시간 초과 정상료 부과)

한국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이벤트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제작비와 함께 3시간 초과 정상료 부과)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회

으로 호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살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광주연고팀 KIXX가 리그 2위로 한국바둑리그 전반기를 마감했다.

한국바둑리그 전반기, '한게임'에 선두 내주고 2위 그쳐

주장 최철한 팀 견인 들판...흥민표·최원용 부진 '옥의 티'

그러나 최철한 9단은 팀의 주장으로서 나무랄 데 없는 활약을 펼쳤다. 개인성적 6승1패로 이창호(매일유업), 이영구(한게임), 유창혁(월드메르디앙)과 함께 다음 1위군에 머무는 등 드물게 팀을 견인하고 있는 것.

KIXX는 2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이재웅 4단의 활약도 뻐놓을 수 없다. 이 4단은 2, 3라운드에서 연속 4강으로 출전, 알토란 같은 승리를 낚아채 '5월의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4라운드에서도 역시 4강으로 출전, 승리를 낚아채면서 팀을 폐쇄 위기에서 구해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KIXX는 후반기에 기회이자 위기를 맞는다.

첫 상대인 신성건설은 선두권 진입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으로 보여 KIXX로서는 혼난한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는 1위 한게임과 외나무 대리 승부를 벌여야 한다. KIXX는 이 경기 내출 경우 한게임과 승점차가 7점으로 벌어지는 등 선두 추격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관

영화관